【재경조찬】2016.09.05 월요일

1. **거시, 데이터**
2. **신화통신 : 항저우(杭州) 중미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이루어낸 성과를 발표하였음. 중미 양국 정상은 통화정책, 재정정책 및 구조적 정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감을 부양하고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약속을 발표하였음. 중미 양국 정상은 철강 및 가타 업종의 생산과잉은 전세계적인 문제로서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풀어야 하는 숙제라고 인식을 같이 하였음.**
3. **팡정(方正)증권 런저핑(任澤平) : 단기적으로는 중성적인 통화정책이 펼쳐질 전망이며 안정적인 성장을 꾀함에 있어 재정정책에 보다 많이 의존할 것으로 보임. 2014년~2015년에 통화정책을 주요 수단으로로 하고 재정정책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삼았던 정책조합과는 달리, 2016년부터는 재정정책을 주요 수단으로 하고 통화정책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하는 정책조합으로 바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래에 적자를 확대하고 PPP에 주력할 것임을 의미함.**
4. **하이퉁(海通)증권 쟝차오(姜超) : 8월의 국내 경제가 일시적인 안정세를 되찾긴 하였으나 식품가격 및 PPI 반등의 영향으로 인해 4분기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인 반등 압박에 직면해 있으며 따라서 은행예금지급준비금율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의 출범시기 또한 계속 미뤄지고 있음. 이는 금리 인하에 단기적인 제동이 걸렸으며 자본시장은 여전히 기회를 기다려야 함을 의미함.**
5. **지우저우(九州)증권 덩하이칭(鄧海淸) : 재정정책과 구조적 개혁을 통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며 이와 더불어 가장 근본적인 성장엔진인 혁신을 격려해야만 G20정상회의에서 제시한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그리고 포용적인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6. **피델리티 인터내셔널(Fidelity International) : 현단계 중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어떻게 하면 경젱성장 모델을 고정자산 투자 견인형에서 소비 견인형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임. 만일 중국이 경제성장 모델의 전환에 성공하게 된다면 지난 수년간의 관찰에서 발견된 글로벌 경제세력이 신흥시장을 선호하는 현상은 다만 시작에 불과하다.**
7. **부동산**
8. **신화통신 : 상장한 부동산기업들의 2016년 반기보고서 공시가 끝났음. 상반기의 뜨거운 부동산 열풍에 힘입어 다섯개 부동산기업의 매출액이 천억위안을 돌파했으며 1~100위권에 든 부동산기업의 시장점유율이 47%로 확대되었음. 시장 분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업계의 집중도가 진일보 증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9. **경제관찰보(經濟觀察報) : 부동산기업이 대부업체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토지 매입 계약금을 지급하는 현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업계 내 관계자가 전함. 예를들어, 정부의 규정에 따를 때 토지출양금의 초회불입금 비율이 반드시 50% 이상이어야 하나 부동산 개발기업들은 25%만 자기보유 자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금융기구를 통해 시장 외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지급하거나 보다 높은 비율의 레버리지 방식으로 토지를 획득하고 있으며 심지어 '토지왕'을 탄생시키기도 함.**
10. **시장**
11. **둥팡망(東方網) :** 상장기업들의 반기보고서를 분석할 때 구조 전환 또는 대건강(大健康)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추세가 형성되고 있음음. 특히 보험 계열이 강세를 보이면서 **'보험 + 건강'이 미래의 주도적인 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됨.** 업계 내 관계자들은 중국이 세계 제2의 의약 시장으로 자리매김 함에 따라 앞으로 대건강(大健康) 산업의 성장 공간이 상당할 것이라고 분석함.
12. **경제관찰보(經濟觀察報) :** 한 소식통은 **올해 하반기에 개인소득세 이연형 양로보험 시범사업 방안이 출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전함.** 개인소득세 방안은 이미 국무원에 상정되었으며 개인소득세법 또한 개정을 앞두고 있음. 단, 2016년 안으로 개혁이 추진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며 개인소득세 이연 양로보험이 바로 최적의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음.
13. **보험감독관리위원회 황훙(黃洪) 부주석 : 13.7억명의 중국인구 중 장기생명보험에 가입한 인구는 4천만명에 불과함. 전반적으로 볼 때, 국민들이 우리 나라의 생명보험업 개혁발전 성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나 국민들의 만족감은 부족한 편임. 이는 장기생명보험증의 보급 능력을 통해서 알 수 있음.**
14. **我的鋼鐵(mysteel.com) :** 지난주 **중국 강철현물종합지수는 주간 1.03% 하락한 99.96으로로 거래를 마감하였음.** 블랙 계열 선물 제품의 가격이 일시적인 급락세를 보이면서 강편 톤당 가격 또한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다시 반등하였음.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강재 현물 시장 가격은 전반적으로 요동치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시장 거래량 또한 부진한 모습을 보였음.
15. **신화통신 :** 시노팩(SINOPEC) 추이광레이(崔光磊) 정유사업부 부주임은 국제 원유가격이 대폭 하락하는 가운데 국내 정유 업계의 생산과잉 등 문제 또한 진일보 부각되고 있고 현단계의 생산능력 이용율이 이미 70%를 하회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공유 공급과잉 국면이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라고 전함.
16. **러시(樂視, Le)사 CEO 쟈웨팅(賈躍亭) : 러시(樂視) 슈퍼 자동차로 인해 자동차 산업이 인터넷 생태의 전기자동차 시대로 진입할 수 있기를 희망. 모든 전기자동차기업 심지어 모든 인터넷전기자동기업이 공동으로 전통 자동차 거두업체들의 진정한 변혁 심지어 전통 자동차 거두업체의 전복(顚覆)을 도모해야 함.**
17. **증시**
18. **상하이·선전 증권거래소 :**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9월 2일까지 **상하이·선전 증시의 유통주 시가총액은 38.06조위안으로 주간 0.38% 감소하였음.** 양 증시의 평균주가는 10.31위안으로 주간 0.38% 하락하였음. 상하이 증시의 상장회사 수는 1,125개이고 평균 주가수익율은 15.37를 기록하였으며, 선전 증시의 상장회사 수는 1,807개이고 평균 주가수익율은 41.33을 기록하였음.
19. **신삼판(新三板) : 지난주(8.29~9.2) 신규 등록한 기업 수는 44개로 직전주 대비 증가 기업 수가53개 줄어들었으며 거래금액은 30.6억위안으로 직전주 대비 1.13% 감소하였음. 현재 신삼판(新三板) 총 등록기업 수는 8,920개임.**
20. **국제**
21. **CNBC ：미국 상장기업 수가 32년만에 최소치를 기록하였음. 시카고대학 증권가격 연구센터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주식 수는 1984년 이래 최소치인 3,267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이되었음. IPO에 대한 선호도 하락, 주식회수구입 및 인수합병의 붐이 미국 상장기업 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22. **지난주 금요일, 발틱해 건화물 운임지수(BDI)는 1.12% 상승한 720포인트를 기록하였으며** 주간 등락폭은 그 전과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23. **외환**
24. **지난주 금요일, 중국 위안화(CNY) 대 미국 달러화의 환율은 등락폭이 동일한 6.68에 거래를 마감하였으며 주간 0.17% 하락하였음. 위안화 기준환율은 6.6727을 기록하였고, 주간 0.36% 하락하였음.**
25. **신화통신 : 중미 양국은 공동으로 G20 정상회의에서 달성한 환율 약속을 이행할 것을 재천명하였음. 경쟁적인 통화가치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경쟁을 목적으로 환율을 조정하지 않겠다는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중국은 계속해서 환율 시장화로 전환할 것이고 환율의 쌍방향 변동성을 강화할 것임. 중국은 위안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기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함.**
26. **미국증시**
27. **지난주 금요일, 다우지수는 0.39% 상승한 18,491.96을 기록하였고** 주간 0.52% 상승하였음. **S&P 500지수는 0.42% 상승한 2,179.98을 기록하였고** 주간 0.51% 상승하였음. **나스닥종합지수는 0.43% 상승한 5,249.9를 기록하였고** 주간 0.59% 상승하였음.
28. **석유**
29. **지난주 금요일,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의 10월 선물 가격은 2.97% 상승한** 배럴당 44.44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주간 6.72% 하락하였음.** **ICE 브런트 원유의 11월 선물 가격은 2.93% 상승한** 배럴당 46.78달러를 기록하였음. **원유 딜러의 분석에 따르면, 국제 원유 가격이 '급격히 역전'하는 시점에 놓여 있으며 OPEC 정책의 조정이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